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

채우영¹ · 정은영² · 김현진^{1,†}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청암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3년 9월 29일 접수: 2023년 12월 27일 수정: 2023년 12월 29일 채택)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tudent Counsel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Woo-Young Chae¹ · Eun-Young Jung² · Hyun-Jin Kim^{1,†}

¹Dep.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Dep. Nursing, Cheongam College

(Received September 29, 2023; Revised December 27,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 S 여자대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록된 모든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상담의 촉진' 요인, '상담의 비촉진 요인' 2개의 주제, 4개의 범주, 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의 범주는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응', 'MZ 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 두 번째 주제의 범주는 '상담에 대한 거부감', '상호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상담이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상담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 전공에 따른 연구 참여들 간의 대면 비대면 상담에 대한 비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질적연구, 내용분석,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tudent counsel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eri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0 students at S Women's University in Gyeonggi-do from December 2022 to April 2023. All recorded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wo themes, four categories, and eight subcategories were found. Themes were 'factors promoting counseling' and 'Non-facilitating factors in counseling'. The first theme category was 'adaptation to new counseling methods' and 'pursuing convenience as the MZ generation', and the second theme category was 'resistance to counselling' and 'discrepancy from the desire for mutual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3428kim@swc.ac.kr)

relationships'. Through this study, it was helpful to understand that student counseling is essential for nursing students and what the most appropriate and useful counseling method is.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d important evidence to lay the foundation for comparative research o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ounseling among research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der and major. Further suggests research to develop a student counsel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nd confirm its effectiveness.

Keywords : Non-Face-to-Face Counseling, Face-to-Face Counseling, Qualitative Research, Content Analysis, College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는 2019년부터 시작된 신종감염병으로 급격한 변화와 평범한 일상생활이 침해받는 어려움과 동시에 전 세계인의 연령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향하는 과도기로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과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혼동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1]. 대학 생활, 취업 등의 새로운 발달과 과업을 수행해야 할 청년기 초기의 대학생들도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2].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갑자기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화면을 통해 교수자를 만나고 전공 학습을 해야 했으며,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다[3].

과거에 비해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지 못하고 대학 입학 이후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여, 교육적 차원의 예방과 개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4].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5]. 이러한 개인 진로상담은 진로 결정과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로,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돕는 작업이다[6,7].

간호대학생들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 생활 동안 많은 학습량과 치열한 학업

경쟁,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병행의 치열한 간호대학생으로서의 대학 생활을 보낸다[8]. 더욱이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입학 초기부터 의학용어, 과중한 전공과목, 핵심기본 간호술기 습득, 병원, 지역사회 기관 등의 낯선 외부환경에서의 실습 중 생기는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가 있다[9]. 이러한 과정들은 간호대학생들이 앞으로 간호 전문 인력으로의 성장하기 위한 책임감과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 대학 생활 동안 교수자의 정기적인 상담으로 자신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10]. 그러나 코로나 19 대유행 동안에는 학생상담도 비대면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비대면 상담을 경험하였다.

최근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 일상 시대에 대학 학생상담 기관에서 비대면 기반 학생상담센터 운영의 만족도와 어려움에 대한 연구[11], 대학생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12], 비대면 학습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13], 대학생들의 화상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14] 등이 있다. 이렇듯 코로나 19시기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연구는 비대면 상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층 인터뷰는 상대방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며, 폭넓은 정보 수집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단기간에 도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15].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

면 상담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대면과 비대면 상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리고 내용분석은 현상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분석방법으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본 연구에 적합하다[16].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대면과 비대면 상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에 효율적인 방식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관련된 경험을 하였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말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경기도 소재 S 여자대학교의 재학생 중 코로나 19시기에 비대면 상담과 코로나 대면 상담을 모두 경험해 본 학생 중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잘 말해줄 수 있는 내담자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0명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Table 1)

2.3. 자료 수집

심층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조사로서 코로나 19시기에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학생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간호학 박사 전문가이면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연구한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질문지는 ‘코로나 19시기에 비대면 상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다 경험해 본 결과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의 좋은 점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19시기의 상담과 코로나 19시기가 아닌 시기의 상담이 차이가 있으십니까? 비대면 상담 경험 시 상담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로 작성하였다.

심층 인터뷰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주제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가지는 권리, 비밀 보장과 관련된 사항, 녹음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자료는 202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간 수집되었다. 인터뷰는 직접 면담 및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한 사람당 1회 실시되었다. 한 회기 당 소요된 인터뷰 시간은 40-60분이었

Table 1. General information about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Grade
1	23	4
2	25	4
3	23	4
4	22	3
5	21	3
6	30	4
7	23	4
8	22	3
9	23	4
10	22	3

다. 인터뷰는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반구조화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이 반복되는 등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 각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내용은 인터뷰 후 즉시 녹취록의 형태로 엑셀 정리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녹취록 내용 중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거나 필요시 기호로 대체되었다.

2.4. 자료분석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한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이 되었다. 필사된 면담 내용은 Elo와 Kyngäs [17]의 준비, 조직화, 보고로 구성된 내용분석방법 중 귀납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간호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민감한 방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은 자료로부터 재현 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이며, 분석의 결과는 개념 또는 카테고리라 된다. 개념은 이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으로 접근하고 귀납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기존 현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거나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귀납적 방법이 선호된다. 귀납적 방법은 준비-조직화-보고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본 연구도 최대한 이 과정을 준수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필사된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 전체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단어, 구, 문장을 분석단위 형태로 선택하였다. 조직화 단계는 세부적으로 개방 코딩, 범주 형성, 추상화 3단계로 수행하였다. 우선, 필사된 면담 내용을 읽으면서 메모하거나 제목을 다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고 코딩 시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작성한 코딩 시트를 모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으로 그룹화하는 하위범주(sub-category)를 형성하였으며,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더 높은 차원의 범주(category)로 묶어 총 범주의 수를 줄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성된 범주를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추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주제(theme)를 도출하였다.

2.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저자들은 면담 시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 학생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들과의 상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학회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 또한, 두 연구자는 질적연구 방법론을 대학원 과정 중 수강하였고, 질적연구 관련 학회 및 워크숍, 문헌고찰을 통해 질적연구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였고, 이전에 질적연구도 수행하였다.

2.6. 연구결과의 질 확보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18]의 질적연구 평가 기준에 따른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심층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조사로서 코로나 19시기에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학생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전 질문을 완성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 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면담 내용을 필사하여 자료의 왜곡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Elo와 Kyngäs [17]의 분석 단계를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였으며, 연구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적합성 확보를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경험한 대상자의 연령 및 학년을 다양하게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화상태 여부는 각 면담 후 모든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였다. 최종 연구결과는 2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참여자의 의도가 올바르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 동시에 응급상황 관리에 대한 임상경험과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확인 가능성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들의 생각, 느낌, 경험 등이 참여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2.7.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

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 본 연구 시 필요한 연령, 학년의 최소한의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연구 종료 후 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지침 기간까지 보관 후 폐기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면 비대면 상담 경험은 2개의 주제가 확인되었다(Table 2). 면담 내용을 코딩화하여 이를 그룹화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4개의 하위범주, 8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제 1. 상담의 촉진 요인

참여자들은 상담 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과 미디어의 힘을 빌려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용'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편안함과 안락함과 공간 및 시간의 자유로움과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을 드러내어 'MZ 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라는 범주로 범주화하였

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대화의 원활함'과 '미디어의 힘을 빌려 속마음을 말할 수 있음'을 상담의 촉진 요인이라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범주1.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용

첫 번째 범주는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용'으로 하위범주인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대화의 원활함'과 '미디어의 힘을 빌려 속마음을 말할 수 있음'에서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법에 적응이 빨랐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현 상황이 좋다고 하였다.

1)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대화의 원활함

참여자들은 코로나 19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전 지도 교수님과 면담은 대면만 하였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여 시간을 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고, 대면뿐만 아니라. 줌, 전화, 카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계기가 되어 대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전에는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한번 하려면 교수님과 저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시간 맞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경우엔 제가 학교 갈 일이 없는데 교수님께서 그날만 가능하시니 제가 그날 학교에 안 갑니다.

Table 2. Content Analysis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student counsel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COVID-19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Factors promoting counseling	Adaptation to new counseling methods	Smooth conversation using various methods You can use the power of media to speak your mind.
	Pursuing convenience as the MZ generation	Comfort and safety Freedom of space and time Strong personal inclination
Non-facilitating factors in counseling	Resistance to counseling	Questions about the need for counseling Anxiety about distortion
	Discrepancy from the desire for mutual relationship	Difficulty expressing empathy Difficulty understanding nonverbal messages

라고 하기 죄송해서 면담 때문에 간 적도 있어요” (참여자 4)

“코로나 19에는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려면 이상하게 면담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상해요. 저도 당연히 면담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좀 뭔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줌도 하니깐, 더 다양해서 여러 가지 대화 창구가 마련된 것 같아 훨씬 활용하기가 좋고 면담 시 대화의 양도 훨씬 많아졌어요” (참여자 1)

2) 미디어의 힘을 빌려 속 마음을 말 할 수 있음.

참여자들은 미디어의 힘을 좋아했다. 여기서 미디어의 힘은 대면 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비대면으로 특히 문자나 메일 카톡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면 시 미디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저는 막상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얼음이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면담하고 나오면 다 말을 못 한 것 같은 아쉬움과 더불어 웬지 교수님이 날 이상하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전 줌도 부담돼서 카톡으로 교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무슨 말을 적지하다가 대화하다 보니 제 속마음을 다 말하고 제가 몰래 비밀로 두던 가족 이야기까지 하는 것 있죠?” (참여자 2)

범주2. MZ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

두 번째 범주는 ‘MZ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로 하위 범주인 ‘편안함과 안락함’, ‘공간 및 시간의 자유로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에서 도출되었다. MZ세대로서의 특성인 편리성 추구를 목적과 타인에게 간섭을 받지 싫어하는 세대이다 보니 비대면 면담 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편안함과 안락함

비대면 면담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넘어 안락함을 준다고 하였다. 평상시 친구들과 주고받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도 교수님과의 거리감도 좁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있다 보니 긴장이 되거나 어려운 감정이 덜 하다고 하였다.

“비대면 상담 진짜 좋아요. 제가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 모르는 장소 가는 것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선 지도 교수님 만나려고 연구실 가거나 학교에 가도 옆에 다른 애들도 많고 불편해요. 근데 제가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니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기까지 하다니깐요” (참여자 6)

“지도 교수님들과 코로나 이전에는 카톡으로 꼭 필요한 말만 했던 것 같은데, 전화로도 약간 딱딱한 느낌? 그런데 제가 흔히 사용하는 카톡으로 하다 보니 교수님께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하트 표시를 한다거나 제일 좋아요 등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교수님도 재미있는 캐릭터 등을 공유하시니 거리감도 좁아지고 재미있어요” (참여자 8)

2) 공간 및 시간의 자유로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다. 대면 면담과 비대면 면담의 가장 큰 차이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굉장한 매력으로 이 부분을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간호학과의 특성상 학생들이 공부할 분량이 많고, 특히 3학년, 4학년의 경우 실습과 취업 면접 등이 겹쳐 있어서 학업과 실습, 아르바이트, 개인 생활 등을 영위하기에는 공간 및 시간의 자유로움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면담을 한번 하려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꼭 얼굴 보면서 안 해도 되는데 꼭 만나자고 하시고, 그런데 코로나 19가 발생한 직후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니깐 면담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있던 집에서 혹은 솔직히 씻지 않고 해도 괜찮으니까.” (참여자 7)

“전 코로나 19시기에도 돈을 벌어야 해서 바쁘는데, 항상 친구들은 취업 문제나 학업 문제 등으로 교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교수님에게 전에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하면 웬지 버릇 없어 보이고 저를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 부분이 자유로워지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참여자 5)

3)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오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졌는데, 코로나 19라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좀 더 개인주인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진 것 같고, 그렇게 행동도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상담의 편리성을 더 추구하지 않았나 하고 말하였다.

“원래도 대학생이 되면 많이 주체적이 되고 그러는데 코로나 19 상황을 접하니깐 그게 좀 더 강해지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봐도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해 보고, 그러나 보니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단체 면담 등을 할 때도 좀 불편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을 정도 더라고요”(참여자 4)

“워낙에 혼자 있다 보니 그게 익숙한데 누군가랑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물며 친구도 어려운데 교수님은 더 어렵죠. 교수님은 잘 해주려고 하시고 자주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냥 전화가 편한 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고.”(참여자 3)

주제 2. 상담의 비촉진 요인

참여자들이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과 면담 시 상대방이 참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이 보여,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의문’, ‘왜곡에 대한 불안감’을 ‘상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범주화하였고, ‘공감 표현의 어려움’과 상담 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느끼게 되는 ‘비언어적 메시지의 파악 어려움’을 ‘상호 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라고 범주화하였다.

범주1. 상담에 대한 거부감

첫 번째 범주는 ‘상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하위 범주인 ‘상담 필요성의 의문’과 ‘왜곡에 대한 불안감’에서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 이면에는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하였다.

1) 상담 필요성의 의문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입시를 거치면서 입시 외에는 면담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본인들이 할 말이 있거나 할 때 했었는데,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교수님들이 상담을 하자 하고 개인 면담뿐만 아니라 집단 면담도 하자고 하니 가지 불편하고 안 가자니 웬지 나만 안 좋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상담 자체가 왜 필요한지 굳이 할 이야기도 없는데 자주 만나자고 하시니까, 비대면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비대면이 대면보다는 편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 없는 건 제 경우에는 비슷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고, 꼭 할 말이 없는데 상담을 해야 하나요”(참여자 9)

“다른 친구들은 학업 문제나 취업 문제로 상담도 하고 하던데, 전 결국 취업도 거의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안 해 본 애들도 있는데 제 교수님은 유난히 자주 더 만나자. 취업은 어떻게 되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딱히 해결책은 없거든요. 게다가 혼자 면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집단 면담 같은 것 하면 너무 불편해요”(참여자 10)

2) 왜곡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모든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왜곡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말을 잘 하던지 못하던지 간에 면담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후회가 된다고들 하였다.

“면담하고 나면 웬지 이 말은 안 했을걸, 이 말은 하지 말걸,이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고, 후회를 하게되요. 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칠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에요”(참여자 8)

“상담하게 되면 어쩔 때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제 말이 오해를 살까 혹은 다른 뜻으로 비치는 않을까 하고 걱정돼요. 다만 그 부분이 비대면이 조금은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비대면도 줌으로 하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참여자 7)

범주 2. 상호 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

두 번째 범주는 ‘상호 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로 하위범주인 ‘공감 표현의 어려움’과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 어려움’에서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공감 표현이나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이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비대면이 아이러니하게 편안함을 주면서도 관계에서는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1) 공감 표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비대면일 경우 공감 표현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만, 비대면이라고 줌으로 하게 되면 보완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약한 것 같다고 하였다.

“대면 상담을 하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눈에도 보이고 저도 교수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토닥 거리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참여자 2)

“카톡이나 줌으로 하면 편하고 다 좋은데, 같이 크게 웃거나, 울거나, 힘들어하는 느낌이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비대면의 한계이겠지만, 웬지 손짓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2)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 어려움

참여자들은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이나 전달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든 비슷한 것 같다고 하였다. 다만, 비대면은 접촉을 한다거나 필요시 포옹을 한다거나 등의 다른 표현을 이모티콘 등으로 표현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면을 하면 지도 교수님이 손을 잡아주기도 어깨를 도닥여 주시기도 하는데 혹은 제가 인사드리고 나갈 때 계단까지 마중도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지 뿌듯한 마음과 내가 교수님과 친해졌다는 뭔가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참여자 2)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비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대면으로 하면 교수님과 악수를 할 때도 있고 하니깐 뭔가 파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묘한 느낌이 있는데, 줌이나 카톡으로 하면 이모티콘 등을 보내서 친근감이 있는 대신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참여자 8)

3.2. 고찰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에 간호대학생의 대면과 비대면 학생상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내용분석을 진행한 질적연구이다. 주제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인 ‘상담의 촉진요인’과 두 번째 주제인 ‘상담의 비촉진 요인’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모두 경험한 참여자들로서 두 상담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의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응과 편리성을 추구하여 상담이 촉진됨을 경험하였지만, 한편으로 상담에 대해 거부감과 상호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를 보임으로서 상담을 저해하는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상담의 촉진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긍정적으로 인식된 간호대학생상담 경험은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응’과 ‘MZ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가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상담의 촉진 요인’의 하위범주로 분석된 ‘새로운 상담 방법의 적응’은 간호대학생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비대면 상담 과정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들이 점차 적응해 가고, 화면을 보고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 익숙해져, 비대면 상담의 방법이 가장 편안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비대면이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였다[12].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가족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화상 상담 경험 연구에서 젊은 층의 내담자가 비대면 화상 상담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고 익숙해하며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19].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미디어의 힘을 빌려 대면 시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비대면의 방법을 이용하여 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상담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주요한 상담 내용 중 ‘학점 관리’와 ‘진로와 취업’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담의 주제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10] 지속적인 학생상담 관리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매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비대면 상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11].

두 번째 범주로 제시된 ‘MZ세대로서의 편리성 추구’는 MZ세대인 간호대학생에게 비대면 상담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세대의 특성으로 인해 비대면 상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상담으로 인해 편안함과 편안함을 넘어 안락한 느낌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긴장감이나 어려운 감정을 덜 느끼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대면 상담으로 인해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함으로서 대면 상담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음으로 인한 긴장감이나 관계 맺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대화에 집중이 되며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12]와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비대면 상담으로 인해 공간 및 시간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공부할 분량이 많고 학업과 실습을 병행함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함에 비대면 상담으로 인해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문자 기반 비대면 상담 연구에서 비대면 상담이 접근성의 용이함, 익명성, 유연성 및 즉시성의 장점이 있고[2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대면 상담이 시간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21]. 대학상담센터의 내담자들의 비대면 심리 상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대면 상담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음으로 인해 접근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느낌을 보고하였다[22]. 또한,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시기 시기적인 상황으로 인해 개인주인적인 성향이 강해져 대면보다 비대면의 편리성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 기술의 발전과 개인주의를 넘어 초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비대면인 언택트(Untact)시대의 도래로 인한 현상[23]이며 간호대학생의 학생상담에도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비대면 상담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대면 상담은 상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비대면 상담은 학생상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대면 상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 개

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대면 상담을 제공 받는 대상자의 특성, 요구, 상황들이 다양하므로 상담자는 상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두 번째 주제인 ‘상담의 비촉진 요인’은 간호대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거부감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으로 인식된 간호대학생의 상담 경험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과 ‘상호 관계에 대한 갈망과 괴리’가 상담의 비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상담의 비촉진 요인’의 하위 범주로 분석된 ‘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간호대학생들의 상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과 동시에 상담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든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화상상담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은 새로운 화상이라는 방법에 불편감을 가짐과 동시에 낯설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 및 상담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는 선행연구[12,20,24]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후 상담내용에 대한 후회가 들며, 내용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집이라는 환경에서 비대면 상담을 시행함으로써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관련된 주제를 말하기 어려움을 호소한 선행연구[12]와 관련이 있다. 또한, 대학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심리 상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대면 상담의 물리적 방해 요인으로 비밀보장 및 안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21]. 이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제한을 주며,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을 진실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달하게 할 수 있어 상담의 저해 요인이 된다. 또한 상담이 형식적으로 행위로 여기게 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여 길 치레적인 이야기로만 끝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은 꼭 필요하다. 이에 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체계 구축과 더불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불안감 없이 상담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로 제시된 ‘상호 관계에 대한 갈

망과의 괴리'는 참여자들은 상담 시 공감 표현이나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는 비대면 상담의 비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특히 비대면 상담의 경우 공감 표현의 한계를 느끼며 공감 표현의 전달이나 느낌의 전달이 잘 안됨을 호소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상담센터의 비대면 심리 상담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에의 한계가 있고 소통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음을 호소하였다[12,22]. 비대면 심리 상담의 내담자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도 내담자들은 비대면 상담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제한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25]. 이러한 상담뿐 아니라 코로나 19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을 활용한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이러한 의사소통의 한계에 대한 경험을 호소하였다[26-2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상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중요한 상담의 비촉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비대면 상담의 원활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시행은 인력 부족, 불충분한 시설 등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대학생이 최상의 학생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현황과 요구 그리고 그 단·장기적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력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19시기에 대면과 비대면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상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간호학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기도 일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다른 지역의 간호대학생의 상담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다른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양적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상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간호대학생의 대면 비대면 학생상담을 겪은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상담의 촉진'요인, '상담의 비촉진 요인'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상담 시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상담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학생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담자를 훈련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가 모두 여성과 간호대학생이기에 참여자의 성별과 전공에 따른 대면 비대면 상담 연구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간호대학생의 상담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면 비대면 상담의 촉진요인과 비촉진요인은 추후의 양적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검증 받을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 Y. Son, J. Y.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omestic main counseling journal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3 pp. 149-170, (2017).
DOI: 10.15703/kjc.18.3.201706.149
2. J. Y. Kang, M. W. Ji,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face-to-face service major students under COVID-19: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3 pp. 177-191, (2021).
DOI: 10.20496/cpew.2021.8.3.177
3. Y. K. Gwak, "The effects of stress perception & stress coping on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Comparison of usual

- depression group and sub-clinical depression group”,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8, No.6 pp. 125-133, (2023).
DOI: 10.9708/jksci.2023.28.06.125
4. M. S. Kim, M. J. Kim, S. Y. Lee, “Qualitative research on exploration of career counseling conceptualization elem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1 pp. 103-130, (2018).
DOI: 10.32341/JCER.2018.03.31.1.103
 5. S. H. Kim, “Functions of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3, No.2 pp. 37-52, (2012).
 6. M. C. Kang, A. R. Lee, M. R. Shin, Y. S. Lee, H. Jo,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of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9, No.2 pp. 383-408, (2017).
DOI: 10.23844/kjcp.2017.05.29.2.383
 7. J. Y. Jo, S. M. Chun, “A study on the effects and proces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according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areer Counseling Association*, Vol.4, No.1 pp. 101-136, (1999).
 8. Y. K. Kwag, “The effects of stress perception & stress coping on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Comparison of usual depression group and sub-clinical depression group”,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8, No.6 pp. 125-133, (2023).
DOI: 10.9708/jksci.2023.28.06.125
 9.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4 pp. 400-419, (2006).
 10. Y. K. Kim, N. H. Go, “The effects of stress and anxiety on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7, No.3 pp. 89-99, (2023).
DOI: 10.37181/JSCS.2023.7.3.089
 11. D. L. Kim, J. I. Lee, G. Y. Gim, H. Yoo, “The function and role of college student counseling center in the era of COVID-19 (With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cases of operation of non-face-to-face student counseling cent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Case Studies and Practice*, Vol.6, No.1 pp. 47-63, (2021).
DOI: 10.15703/kjccsp.6.1.202106.47
 12. A. R. Chung,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videoconferencing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32, No.1 pp. 331-355, (2022).
DOI: 10.21024/pnuedi.32.1.202203.331
 13. H. G. Eu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online learning counseling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Vol.32, No.2 pp. 639-648, (2021).
 14. S. J. Lee, Y. N. Byun, D. H. Kim, Y. S. Kim, K. J. Yon, “An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videoconferencing counseling”,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4 pp. 119-141, (2021).
DOI: 10.20496/cpew.2021.8.4.119
 15. Y. C. Jun, “Comparative review study between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5, No.1 pp. 147-168, (2017).
DOI: 10.18230/tjye.2017.25.1.147
 16. S. H. Choi, J. H. Jeong, S. W. Jung, “Concept and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Vol.2, No.1 pp. 127-155, (2016).
 17. S. Elo, H.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2, No.1 pp. 107-115, (2008).
DOI: 10.1111/j.1365-2648.2007.04569.x
18.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8, No.3 pp. 27-37, (1986).
19. M. A. Seo, J. S. Kim,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video counseling by family therapists: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8, No.4 pp. 451-470, (2020).
DOI: 10.21479/kaft.2020.28.4.451
20. L. Fang, S. Tarshis, L. McInroy, F. Miishna, “Undergraduate Student Experiences with Text-Based Online Counsell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48, No.6 pp. 1774-1790, (2018).
DOI: 10.1093/bjsw/bcx111
21. E. Y. Yoo, “An exploratory study on non-face-to-face counseling for adolescents in the with-COVID er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6 pp. 2827-2841, (2022).
DOI: 10.22143/HSS21.13.6.194
22. E. H. Kim, E. S. Lee, Y. J. Cho, “A qualitative study of client experience on non-face-to-face counseling at college counseling cent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22, No.2 pp. 85-110, (2021).
DOI: 10.15703/kjc.22.2.202104.85
23. D. S. Jeon, S. C. Bang, “A study on changes in trade in the on-tact era and its use in online exhibition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94 pp. 121-143, (2022).
DOI: 10.35980/KRICAL.2022.5.94.121
24. J. S. Hong, J. S. Choi, H. K. Kim, “Post-COVID 19, a study on the clients experience of non-face-to-face counseling”, *The Association of Korea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4 pp. 261-290, (2021).
DOI: 10.20496/cpew.2021.8.4.261
25. Y. J. Lee, M. H. Ryu, Y. H. Lim, “On the client’s experience of non-face-to-face psychological counseling quest: Focusing on telemental health app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9 pp. 707-732, (2022).
DOI: 10.22251/jlcci.2022.22.9.707
26. S. M. Jang, J. W. Lim, I. J. Lee, Y. S. Rhee, G. A. Choi, “Experiences of non face-to-face services for medical social workers during the COVID-19 crisi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23, No.3 pp. 81-111, (2021).
DOI: 10.22944/kswa.2021.23.3.004
27. S. M. Jang, J. H. Jeong, H. Y. Lee, “Literature review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 in human servi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42, No.1 pp. 20-40, (2022).
DOI: 10.15709/hswr.2022.42.1.20
28. J. S. Hong, E. J. Park, M. S. Park, “Post-COVID-19, A study on the counselors’ experience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The Association of Korea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4 pp. 261-290, (2021).
DOI: 10.20496/cpew.2021.8.4.261